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손완이 국제교류처장, 권문화 전문위원 등 호남대 실무단이 9박11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각급 교육기관과 교류 협력을 논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호남대학교 제공)

호남대 '정주형 베트남 유학생 유치' 박차

현지 대학·유학원과 협약 체결
체계적·안정적 유학 경로 제공
지역 산업 인재 확보·정착 지원

호남대학교가 베트남 주요 대학·유학원과 협약을 맺고 유학생 다변화와 '정주형 유학생'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호남대에 따르면 박상철 총장과 손완이 국제교류처장, 권문화 국제교류처 전문위원 등 실무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9박11

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들은 대학·전문대·고등학교·유학원 등과 학점 교류, 학·석·박사 연계,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광주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 '글로벌 오픈캠퍼스 조성'의 일환으로, 베트남 우수 유학생 유치와 함께 지역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 확보를 목표로 했다.

실무단은 ▲하노이 베트남 국립농업대(7월24-25일)·다이남대(7월25일) ▲한국 유학 박람회(7월26-27일) ▲하이퐁 마리 퀴리 고등학교(7월28일) ▲하이퐁 백에 전문대-에디스 사립학교·

한-베 문화원·하이퐁 플랩보이언트 유학원(7월29일) ▲응에안성 한국-베트남 산업기술대·빈 공업교육대(7월31일) ▲성공(THANH CONG) 유학원(8월1일) 등을 차례로 찾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학 간 교류에서는 ▲2+2, 3+1, 1+3, 2+1+1 학점 교류 ▲학·석·박사 연계 ▲교환학생 등 다양한 교육협력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했으며 향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하노이 한국교육원이 공동 주관한 '베트남 한국 유학 박람회'(7월26-27일·하노이 켄우저이 체육관)에서

는 호남대 홍보 부스를 운영, ▲장학 제도 ▲광주 생활환경 ▲유학 경비 등을 안내하고 베트남 대학·교육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 강국' 진입을 목표로 'Study Korea 300K Project'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유학생 중 베트남 유학생은 5만6천3명으로 중국에 이어 전체 2위를 차지했다.

호남대는 2025년 1학기 기준 유학생(학부·대학원 포함) 1천645명 중 중국 유학생이 1천2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345명으로 뒤를 이었다. 손완이 국제교류처장은 "대학들과의 협약을

통해 베트남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학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학생을 위한 맞춤형 유학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국제학생 유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철 총장은 "이번 방문과 박람회를 통해 호남대의 베트남 내 인지도를 높이고 광주가 글로벌 교육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 양국 관계가 속도감 있게 확대되는 만큼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광주전략산업 허브 대학'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기자

전남서 자란 다문화 인재 이주배경학생 가르친다

도교육청, 전국 최초 2명 임용

지역 교육 여건·특색 반영 '결실'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다문화인재 전형' 초등교사를 배출하며 지역 맞춤형 교원 확보를 결실을 맺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다문화 인재 전형'을 통해 선발된 초등교사 2명을 포함해 총 43명의 교사를 9월1일자로 신규 임용했다.

신규 임용된 초등교사 2명은 모두 전남 이주배경가정에서 성장해 교육대학교에 진학한 뒤 다문화 인재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한 인재들이다. 다문화 인재 전형은 전남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대학교에서 교사 자격을 취득한 인재를 선발해 전남 교사로 임용하는 지역 맞춤형 교원 임용 제도다. 이 전형은 전남의 교육 여건과 지역 특색을 반영해 교단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고 전남 특성에 맞는 이주배경학생의 진로·진학

실행의 성공적 모델 마련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전남 지역 이주배경학생은 지난해 기준 1만2천236명으로 전체 학생(19만425명)의 약 6.43%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동시에 전남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어 지역 기반의 교사 확보는 교육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문화 인재 전형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대응책이자 전남 출신 인재가 다시 전남에서 교사로 성장하고 정주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사례다. 이들은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의 초등학교에 배치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한다. 신규 교사들이 이주배경학생의 문화와 삶을 깊이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습 지원은 물론, 이들의 진로와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에서 자란 교사가 다시 전남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구조는 지속가능한 지역 교육을 실현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市교육청 "하반기 영유아 맞춤형 독서 지원"

광주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에

운영비 또는 독서 꾸러미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영유아의 독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독서문화 조성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광주 지역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 지역에는 유치원 250여곳, 어린이

집 780여곳 등 총 1천300여곳의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에서, 교육청은 유치원만 관리하고 있어 영유아 정책이 각각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교육청은 유보통합 기조 속에서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의 지원 범위를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넓힌다.

특히 '책이랑 놀자! 마음이랑 크자!'를 표어로 영유아 발달 수준과 기관 특성에 맞춘 독서 환경을 구축해 책 읽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만들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만 3-5세 유아가 한 명이라도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다음 달 높이 중심 교육·보육과정과 연계한 '독서문화 조성 운영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29일 시교육청 자료집계 시스템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만 0-2세만 있는 어린이집에는 오는 10월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꾸러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구성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유보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조선대·광주대·광주여대, 대학혁신사업 'A등급'

교육부 성과평가 '우수'

조선대·광주대·광주여대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A등급'을 받았다.

11일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2주기(2022-2024년도) 대학의 혁신 전략과 운영 실적, 성과 관리 체계, 3주기(2025-2027)

계획 등을 평가했다.

조선대는 전국 13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교육과정 혁신,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전공 선택권 확대, 성과관리 체계 강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등급을 획득, 인센티브 60여억원을 포함해 총 12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광주대는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생

설계전공 개발과 인공지능(AI) 앙트스프(기업가 정신) 대학 신설로 자율전공 트랙을 구축한 점이 호평 받았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맞춤형 지원 체계와 성과 환류 시스템 마련도 주목받았다.

광주여대는 비수도권 4개 권역별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지역 강소대학'으로 가중치 1.7배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현진 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